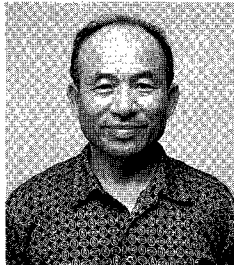


채란업 위기, 생산감축만이 절대절명의 과제



유 홍 복
(유원농장 대표)

아 시아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가 결국 유혈사태를 불러오고 수하르토 대통령이 해야하는 파국을 맞게 되었다.

이를 지켜보면서 군부독재의 장기집권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지적하기에 앞서 국가의 경제 위기 앞에서는 어떤 힘의 논리도 통하지 못한

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된다.

아시아 국가중 한곳이 흔들리면 주변국은 물론이고 세계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같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그저 남의 일인양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외환위기 이후 범국민적으로 실시한 '금모으기 운동' 등의 자구노력으로 외환보유고가 약간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이 8%선까지 증가하였으며 외국의 자본가들은 투기를 일삼으며 국내의 주가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가운데 제2의 외환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 불안감만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IMF체제가 언제까지 우리를 지배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최소한 3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겨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볼 때 실질적인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채란업을 살펴보자. 지난해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시설투자에 집중하면서 급신장(?)을 해왔던 채란업계가 외환위기 이후 빗더미에 올라 앉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때만 해도 사료의 수급불균형과 사료가 격 인상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우리 채란업자들은 자기 농장만은 남들보다 여건이 좋다는 착각(?)에 빠져있었고 남들이 업을 포기하면 이를 호재로 이용하기 위해 버틸대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 결국 저난가 시대의 불명예를 불러왔다. 과연 우리는 이 같은 최악의 사태를 어떻게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가?

1. 표류하는 채란업

4월 이후부터 추락하기 시작한 난가가 두달 가까이 생산비는 커녕 사료가격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황의 늪지대를 걷고 있다. 경제위기를 간파하고 기회만 엿보는 우리의 자세가 결국 이같은 상황을 불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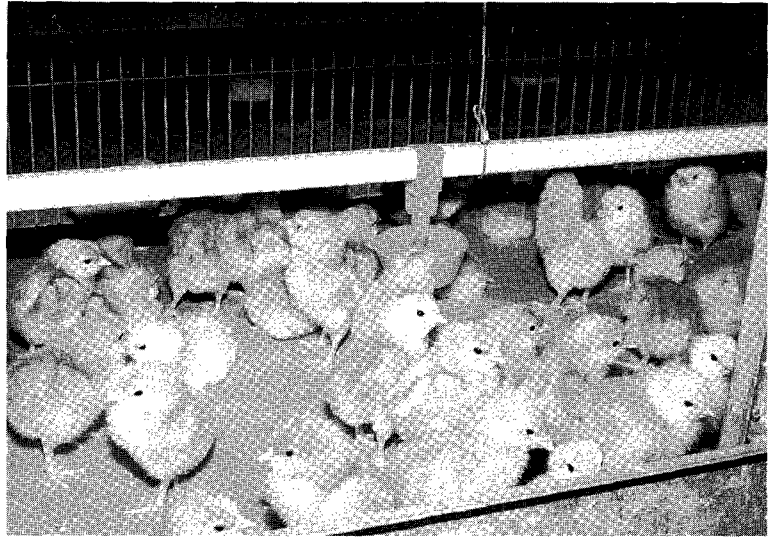
생산량이 적었던 과거에는 불황이 오면 호황의 시기가 빠른 시간내에 찾아와 시기만 기다리면 업을 영위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사육규모가 대형화되고 유통구조가 복잡해진데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사정으로 소비가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불황은 지난해 3/4분기에 입식된 종계가 올해 초 병아리생산에 가세하면서 난가상승에 발맞춰 채란농기들에게 입추열기를 불러왔고 이들 계군들이 현재 계란생산에 적극 가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소비가 40% 정도 줄어들어 생산과잉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생산이 전혀 줄지않은 것만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문제가 되어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해진 것처럼 우리 업계도 IMF 체제하에 들어가면서 사료회사들이 농가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거래가 부실했던 농가들에게는 현금을 요구하면서 압박해 왔으며 자금을 마련하지 않



은 농가들은 닭을 굶겨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몇개 농가들이 수수를 줄여간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어느정도 호전되어 외상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업을 포기하려던 농가도 다시 생산에 가담하면서 구조조정에 전혀 동참을 못하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조건들이 채란업을 영위하기에는 악재들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좋아질 여건이 전혀 없는 듯하다. 생산측면에서 보면 사료가격이 약간 내리긴 했지만 아직 미미한 상태이며 난가가 올라간다는 보장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소비측면에서 보면 공업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실직자들이 늘면서 주머니 사정이 나빠져 소비는 현재 수준보다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큰 규모를 자랑하며 계란을 다량 소비하던 고려당이 이미 부도를 맞았으며, 제과업체들도

과자소비가 줄어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악조건으로 작용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6, 7월은 비수기철인데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결국 체화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수익을 잡으려는 상인들이 농가들을 상대로 덤핑을 자행하면서 유통질서를 더욱 문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일부 농가들도 계란을 처리하기에 급급해 덤핑을 받아들이며 상인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고있는 실정이다.

5월 초순경 전국 난가조절위원들은 고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20원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생산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거래가격은 묶어두고 고시가격만을 내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정보가 모든 생산자들에게 홍보가 일시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생산자들은 협회에 한층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 난가고시위원들도 서로 공조체제를 이루어 생산자끼리 덤핑을 조장하는 일도 이 기회에 없애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 우리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둑용어에서 보면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논리가 맞아떨어지던 과거와는 현상황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대기업도 경영악화로 한순간에 쓰러지는가 하면 나머지도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채란업계만이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리스자금을 쓴 농가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하는 등 사태가 심각한 것만은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간파하여 리스자금을 연장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하겠지만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에 매달린다는 것도 명목이 서지 않는 일이다. 전체 양계산업을 위해 고통을 나누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부부터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2. 생산감축만이 살길이다

사료비가 전체 생산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개념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채란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은 위에서 누누히 언급한 바 있다.

시장원리에 맡겨두기에도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인위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우리가 IMF를 피해가는 방법은 없다. 지금까지는 요령껏 피해왔을지몰라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음을 직시하고 저난가시대를 벗어나려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많은 농가들이 사료부채를 갚지 못해 노계도태를 지연시키고 계란생산을 계속해야만 하는 속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비싼 사료를 먹여가며 계란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적자폭만 늘리는 꼴이 되고 생산을 줄이는 만큼 내실을 기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필자가 채란업을 시작한지도 벌써 30년이 넘어서다. 그동안 채란업을 경영하면서 상인들에

게 계란값을 못받은 등의 일들로 인해 2~3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나 최근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농장을 그만두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다.

우리 농장은 55,000수 규모이던 산란계를 이미 30,000수 규모로 감축을 시켰다. 도태 당시 산란율이 72%로 36주령된 계군이라 고민이 있었으나 이를 과감히 도태를 시켰고 현재 32주령된 계군도 상황이 악화되면 곧 처분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종업원을 줄이는 대신 봉급을 감축하여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결행하였다.

생산감축을 시킨 결과 우선 자금회전이 빨라졌으며 계란판매에 있어 부실 거래처를 끊을 수 있어 계란판매가 훨씬 수월해졌고 특히, 나머지 계군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다보니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싶다. 우리 농장의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지구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느것 하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다.

우선 자기농장에서 산란을 하고 있는 닭의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생산성이 낮은 닭들을 과감히 도태를 시키자.

일본에서는 노계 1마리 가격이 150원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노계가격이 좋은 편임을 알고 이를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3. 신선한 계란생산에 더욱 관심을

어려울 때 일수록 계란의 품질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는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일부 상인들이 허황된 소문만 믿고 차액을 챙기려다 난

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3개월까지 보관되어 있던 계란들이 쏟아져 나왔던 예를 볼 때 이런 계란들이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을 경우 소비 위축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또한 최근 종이난좌 가격이 상승하면서 플라스틱 난좌사용이 부쩍 늘고 있는데 이는 질병 문제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상품가치를 떨어뜨릴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란보관에 있어서 종이난좌는 습기를 흡입하지만 플라스틱난좌는 통기성이 없이 신선도가 짧아지게 된다.

실제 농장에서 실험해본 결과 플라스틱 난좌는 종이난좌보다 보존기간이 반으로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플라스틱 난좌의 사용을 절제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채란업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종계업계에서 오는 6월부터 한달간 병아리 생산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당장은 효과가 없고, 종란이 식란으로 처리될 경우 난가에 영향을 미쳐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종계업계에서 병아리 감축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설 경우 우리 채란업자들도 이를 어기는 종계장에 대해서 병아리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함에 따라 차후 병아리 생산조절이 종계업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이 아닌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보자! **양계**